

해외 우수 대학생 60명 동신대서 한국문화 연수

교육부 위탁기관 선정...중앙아시아 등 27개국서 참여

산업체·유적지 견학, 김치·한과 만들기 등 문화체험도

중앙아시아와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거나 한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국가의 대학생들이 동신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

동신대를 방문하는 외국 학생들은 대부분 각 나라의 우수 인재라는 점에서, 한국과 동신대를 알리는 데 한층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27개국 60여명의 외국 대학생들이 동신대에서 한국 문화 집중 연수를 받으며,지하와 글로벌 리더로 거듭난다.

동신대(총장 김필식)는 최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2014년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초청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동신대와 세명대 등 2곳 뿐이다.

사업 선정으로 동신대는 1억57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남도'라는 주제 아래 한국문화 연수를 개최해 외국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보편적인 문

화와 남도 문화를 교육한다.

참가학생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의 27개국에서 각각 재외공관 추천을 통해 선발되며, 항공권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다.

동신대 아동영어교육학과 위렌 파슨스 교수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학생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연수를 돕는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동신대는 한국어특강, 한국문화특강, 철강 자동차 화장품 등 주요 산업체 현장 방문교육, 정부기관 방문, 문화 유적지 견학과 함께 각종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알릴 예정이다.

현연연세 체험, 뷰티미용 체험, K-POP

댄스, 김치 만들기, 한과 만들기 등이 계획돼 있으며 답양, 단양 8경, 경주 등 주요 문화유적지 견학과 기아타이어즈 야구경기 관람, 홈스테이를 통한 가정문화 체험도 계획돼 있다.

이주희 동신대 입학교류처장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세계 각국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정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신대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대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세계 각국에 대학을 알려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송원대, 제 5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치위생학과는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사진)을 가졌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은 4년제 일반대학 승격 후 첫 번째 행사로 김원숙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

사회회장을 비롯한 치과, 치위생사, 각 치과대학 병원장들이 참석해 예비 치위생사들의 선서에 격려를 보냈다.

선서식에 참여한 학교법인 송원대 교직원 이사장은 "예비 치위생사사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의 다짐을 앞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전문치위생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인 인체치수' 연구책임자에 전남대 이영숙 교수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이영숙(사진)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연구과제인 '2015년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 조사 대비 프로토타입 고도화방안'에 대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이는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 준비를 위한 최종 '프로토타입'을 구성 제안하는 연구로, 인체 치수 측정 매뉴얼과 데이터 유효성에 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관 기관은 대한인간공학학회이며 전남대와 서울대, 계명대, KCL이 함께 참여한다.

이영숙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 인체치수사업의 데이터 측정과 처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의 세계 공용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교수는 현재 대한인간공학회의 인체측정분야 담당 이사과 ISO/TC 133 치수 분과 국내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제인체측정전문가기관인 'WEAR'의 장려회원(Core Member)로 활동중이다.

조선대 박사과정 김호용씨 한국물리학회 우수논문상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한국물리학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받았다.

김호용(박사과정 2학기·사진)씨는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 봄 한국물리학회 봄학술 논문발표회의 복잡계 세션 경제물리 부문에서 '핀드 시장과 주식 시장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지도교수 오갑진)발표, 포스터 부문 우수발표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지표 개발에



적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핀드 시장의 성과를 지표와 주식시장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금융 안정화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관찰된 상호작용 정도와 다양한 금융시장 상태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관찰한 내용이다.



전국 고교생 미술실기대회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지난 16일 열린 '제51회 조선대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고등부 조소 부문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30개 학교 37명, 고등부 211개 학교 1271명 등 전국 241개 학교에서 170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조선대 제공>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린티어'

조선대 에코코 팀, 광주·전남 유일 선정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에코코 팀이 '2014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린티어'에 선정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후변화 관련 학습과 현장 활동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국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 '2014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린티어'로 활동할 11개 팀을 선정했다.

장미화(법학과 석사 3학기) 대학원생을 팀장으로 김효진(에너지자원공학과 4년)·인다혜(무역학과 4)·강경화(건축공학과 2) 등으로 구성된 에코코 팀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 기후변화에 관한 배움과 실천을 병행하는 프린티어로 활동한다.

광주시 '해외 뷰티아카데미·관광사업'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3년 연속 주관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학과장 강수경)가 3년 연속 광주시 '2014년 해외 교육생 대상 뷰티 아카데미 및 관광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K-POP 열풍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Korean Beauty' 육성을 위해 광주시의 우수한 뷰티 교육 환경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해, 독창적이며 경쟁력 있는 뷰티 교육 관광을 특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뷰티 교육과 뷰티 체험 그리고 문화·관광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 뷰티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 교육생 대상 뷰티 아카데미 및 관광 사업은 호남대학교 주관으로 추진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울진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침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광주광역시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무안군	452-8535	목포시	276-920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여수시	692-0997
신안군	278-8111	진도군	543-0100	해남군	537-676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완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